

골로새서 2장의 담론분석과 구속사
Discourse Analysis and Redemptive
History in Colossians 2

송영목

고신대 신학과 부교수

목차

1. 들어가면서 | 83
2. 담론분석의 이전 연구사 | 84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담론분석(콜론분석) | 85
4. 담론분석과 다른 헬라이어 분석법의 연관성 | 86
5. 골로새서 2장의 담론분석의 실재 | 87
6. 골로새서 2장의 구속사 | 94
7. 나오면서 | 98





요약

골로새서 2장의 담론분석과 구속사

이 논문은 문학적 해석 방법인 담론분석을 역사·신학적 해석 방법인 구속사적 해석과 통합하는 방식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남아공화국에서 헬라이어 본문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콜론분석이라 불리는 담론분석과 다른 방법론들의 상호 작용을 연구한다. 그 다음, 골로새서 2장의 구속사적 해석을 담론분석의 결과 위에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골로새서 2장을 선택한 이유는 그 본문은 그리스도 사건과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종말론적 구원의 실재를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담론분석에 의해서 뒷받침된 골로새서 2장의 구속사적 메시지는 그리스도 사건을 통한 종말론적 실재라는 포괄적인 구원인데, 이 구원은 반 유대적 및 반 로마적 메시지를 동반한다.

*Discourse Analysis and
Redemptive History in
Colossians 2*

주요어

담론분석, 구속사, 골로새서 2장, 다차원적 접근, 그리스도 사건

Abstract

Discourse Analysis and Redemptive
History in Colossians 2

Prof. Dr. Youngmog Song

This paper integrates discourse analysis (or ‘colon analysis’ in South African term) as a literary hermeneutical method and redemptive-historical interpretation as a historical-theological method in an examination of Colossians chapter 2. Then study of the redemptive history of Colossians 2 is implemented based on the discourse analysis of the text. The reason for choosing Colossians 2 is that it clearly manifests the eschatological reality of salvation through the Christ-event and the union of the Church with Christ. The redemptive message of Colossians 2 proved by the discourse analysis is that all encompassing salvation as an eschatological reality through Christ-event accompanies anti-Jewish and anti-Roman messages.

Keywords | Discourse Analysis, redemptive history,
Colossians 2, multi-dimensional approach,
Christ-event

1. 들어가면서

이 글은 담론(談論, discourse)분석의 연구사(研究史)를 살핀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콜론(colon)분석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담론분석과 다른 헬라이어 분석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한 후, 구속사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의 담론분석을 시도한다. 따라서 이 글은 담론분석이라는 문법적 해석이 구속사라는 역사-신학적 해석과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제시한다. 여기서 골로새서 2장을 선택한 이유는 그리스도 사건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고 구약의 그림자와 대조되는 신약의 종말론적 구원의 실체를 사도 바울이 치밀한 신학적 논의를 통해 선명하게 강조하는 본문이기 때문이다.¹⁾ 담론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골로새서 2장의 구속사는 종말의 새 시대의 실체를 성취하신 그리스도 사건은 반 유대 및 반 로마적 메시지를 동반한 통전적 구원임을 논증할 것이다.

1) 골 2장은 골 1:24-29의 주제를 이어받아 지역 교회들을 위해 당한 바울의 고난(2:1-5)을 소개한다. 그 후 2:6-23은 골로새서의 주제를 다루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에 대한 요청(2:6-7) 그리고 거짓 철학과 인간의 규정에 대항하여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종말적 구원과 승리의 충만함(2:8-23)을 다룬다. J. D. G. Dunn,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6), 41, 136. 그리고 D. W. Pao, *Colossians & Philemon*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34; D. E. Garland, *Colossians/Philemon* (Grand Rapids: Zondervan, 1998), 149-53도 참조하라. 참고로 골 2장의 담론분석에서 필요한 본문비평은 각주로 처리한다.

2. 담론분석의 이전 연구사

담론이란 응집력(coherence)을 가진 주의 깊게 구조화된(structured) 기록이나 발화의 연속(sequence)이다.²⁾ 응집력 있는 잘 조직된 구조에 담긴 저자/화자의 사고(思考)는 작게는 하나의 문장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한 단락이나 한 장 그리고 한 권 전체로 확장된다. 이 확장성은 마치 아파트 입구에서 30층에 있는 연인이 창문을 열어 들을 수 있도록 풍선에 스피커를 매달아 띄워놓고 악기를 은은하게 연주하는 ‘전자 세레나데’(electronic serenade)에 견줄 수 있다.³⁾ 담론분석처럼 현대 언어학의 도움으로써 신약 본문 주해는 진일보하고 있다.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전문 언어 학술지들이 담론분석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지만, 아직도 정의와 방법에 있어 합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담론분석의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와 같은 고전 수사학자들로 거슬러 간다. 20세기 후반에 담론분석은 크게 네 흐름 즉 남아프리카공화국, 북아메리카, 영국-호주, 그리고 유럽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⁵⁾ ‘본문언어학’(text

2) P. Cotterell and M. Turner, *Linguistic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Leicester: IVP, 1989), 230.

3) 참고. Cotterell and Turner, *Linguistic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86.

4)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루려는 신(新)칼빈주의 원리에서 볼 때, (거듭난) 이 성으로 연구된 타 학문의 결과를 성경 해석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조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구원,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복있는 사람, 2013), 101.

5) 신약의 담론분석에 있어서 이론과 적용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방식에 대한 평가는 S. E. Porter, “Discourse Analysis and New Testament Studies,” *Discourse Analysis and Other Topics in Biblical Greek*, ed. by S. E. Porter and D. A. Cars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32-34 그리고 이진섭, 『성경사용 설명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181을 참고하라. 영국에서 수학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레토리아대학교의 요하네스 로우(J. P. Louw)의 콜론분석을 나름 수정해서 적용한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의 이진섭은 담론의 의미를 문맥구조 속에서 밝히기 위해서 콜론분석을 단순화시킨다. “에베소서 1장의 문맥구조분석과 그 함의,” 『성경과 교회』 15

linguistic)이 기록된 본문에 대한 분석을 강조한다면, 프랑스에서 활발히 논의된 담론분석은 본문과 연설(speech)을 아우른다. 하나의 문장을 넘어 더 큰 담론구조(macro-structure) 속에서 저자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에⁶⁾ 담긴 의미/사상을 찾으려는 담론분석의⁷⁾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감안한다면, ‘담론연구’(discourse study) 혹은 ‘본문학’(textology)이라 불리도 무방하다.⁸⁾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담론분석(콜론분석)

요하네스 로우(J. P. Louw)는 약 반 백 년 전에 “Discourse Analysis and Greek New Testament”라는 탁월한 논문을 *Bible Translation* 24 (1973), 101-119에 기고했으며, 그의 영향으로 남아공 신약학술지 *Neotestamentica*에 담론분석 논의가 이어졌다.⁹⁾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학자들과 일부 언어학자를 제외하면 로우의 담론분석(혹은 콜론분석)에 큰 호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
- (2017), 152-53. 콜론분석을 갈라디아서에 적용한 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스텔렌보쉬대학교에서 수학한 홍인규, 『헬라어 갈라디아서의 구조분석』(서울: 도서출판 신국, 2003)을 보라.
- 6) 저자 중심의 석의 경향에서 본문의 독자성을 거쳐 독자 중심의 해석이 풍미한 후, 요즘 저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J. K. Brown, *Scripture as Communication: Introducing Biblical Hermeneutic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69-70. 참고로 성경 해석에서 독자 반응의 중요성은 L. Ryken, 『문학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How to read the Bible as Literature*, 광철호 역, 서울: 은성, 1996), 59를 보라.
- 7)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298.
- 8) Cotterell and Turner, *Linguistic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247.
- 9) 참고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대학교의 사고구조분석(thought structure analysis)의 큰 단위(macro-level)를 나름대로 적용한 예는 개신대학원대학교의 배종열, 『문맥에 따라 읽는 에베소서』(서울: CLC, 2005)를 참고하라. 하지만 이 방식은 Louw의 방식보다 피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철저하지 못하다.

이 현상은 담론분석이 국가와 대륙마다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방증(傍證)한다. 미국의 경우, 담론분석이 별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텍사스대학교와 연계한 The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SIL)의 활동으로 활기를 띠기도 했다.¹⁰⁾ 리드(J. T. Reed)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담론분석 연구 결과물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헬라이어 학자와 신약학자들이 출판했다.¹¹⁾

콜론분석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주어와 동사를 각각 하나씩 포함하는 사고의 최소 단위인 콜론(colon)을 나눔. (2) 전후반부에 걸쳐 2회 이상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인 수직적 표지(vertical markers)와 2회 이상 반복하여 등장하지만 일정 본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인 수평적 표지(horizontal markers)를 표시함. (3) 수평적 표지를 고려하여 콜론의 단락을 묶고 제목(caption)을 붙임. (4) 콜론분석이 완료되면 도표로써 요약 및 정리를 한 후 저자의 사고의 흐름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는 가를 서술함.

4. 담론분석과 다른 헬라이어 분석법의 연관성

구조분석으로서의¹²⁾ 담론분석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개별 단어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구문분석 이후에 수행된다.¹³⁾ 단어, 구, 문장, 단락을 넘어서

10) Porter, "Discourse Analysis and New Testament Studies," 24.

11) J. T. Reed, "Discourse Analysis as New Testament Hermeneutic: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ppraisal," *JETS* 39/2 (1996), 228-29.

12) 문화적 현상과 활동과 산물을 자족적이고 자결적인 상호관계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관습이라고 간주하는 구조주의(structuralism)에 관한 설명은 M. H. Abrams, 『문학용어사전』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최상규 역, 서울: 보성출판사, 1999), 292-96을 보라.

13) 구문분석의 도표화 방식에 관하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대학교의 F. Van Rensburg, *Inleiding tot die Sementiek van Nuwe-Testamentiese Grieks* (Potchefstroom:

담론을 분석할 때, 현저하게 강조된 수직적 표지들(vertical markers)을 어휘의 미론(semantics)을¹⁴⁾ 통해 세밀하게 연구하면 된다. 또한 문법적 해석에 속하는 담론분석은 사회-역사적 해석인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으로 보완되어야 하는데, 신약 연구의 사회-수사학적 분석을 활용하면 된다.¹⁵⁾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독자에게 임팩트를 주는 의사소통 모델은 회행론과 간본문적 해석도 주목하는 바이다.¹⁶⁾

5. 골로새서 2장의 담론분석의 실재

GNT⁵를 따라 담론분석의 단계를 골로새서 2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A: 교회들을 위한 바울의 수고

1(1) Θέλω γὰρ ὑμᾶς εἰδέναί

2 ἡλίκων ἀγῶνα ἔχω ὑπὲρ ὑμῶν καὶ τῶν ἐν Λαοδικείᾳ

3 καὶ ὅσοι οὐχ ἑώρακαν τὸ πρόσωπόν μου ἐν σαρκί,

4(2) ἵνα παρακληθῶσιν αἱ καρδίαι αὐτῶν

5 συμβιβασθέντες ἐν ἀγάπῃ καὶ εἰς πᾶν πλοῦτος τῆς πληροφορίας

τῆς συνέσεως, εἰς ἐπίγνωσιν τοῦ μυστηρίου τοῦ Θεοῦ, Χριστοῦ,¹⁷⁾

Wesvali Boekhandel, 1979), 84-99를 보라.

- 14) 구문분석과 어휘의미론(semantics)의 연결은 E. A. Nida, J. P. Louw, A. H. Snyman, and W. J. Cronje, *Style and Discourse*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83), 112를 보라.
- 15) 실례는 송영목, “유다서의 구문과 구조의 특성,” 『신약논단』 28/1 (2018), 181-206을 보라.
- 16)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계시사를 파악하기 위한 정경적-간본문적 해석의 중요성은 Brown, *Scripture as Communication*, 228-30을 보라.

6(3) ἐν ᾧ εἰσιν πάντες οἱ Θησαυροὶ τῆς σοφίας καὶ γνώσεως ἀπόκρυφοι.
 7(4) Τοῦτο λέγω,
 8 ἵνα μηδεὶς ὑμᾶς παραλογίζεται ἐν πιθανολογία.
 9(5) εἰ γὰρ καὶ τῆ σαρκὶ ἄπειμι,
 10 ἀλλὰ τῷ πνεύματι σὺν ὑμῖν εἶμι,
 11 χαίρων καὶ βλέπων ὑμῶν τὴν τάξιν καὶ τὸ στερέωμα τῆς εἰς
Χριστὸν πίστεως ὑμῶν.

B: 핵심 주제 진술

12(6) Ὡς οὖν παρελάβετε τὸν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τὸν κύριον,
 13 ἐν αὐτῷ περιπατεῖτε,¹⁸⁾
 14(7) ἐρριζωμένοι καὶ ἐποικοδομούμενοι ἐν αὐτῷ
 15 καὶ βεβαιούμενοι τῆ πίστει¹⁹⁾ καθὼς ἐδιδάχθητε,
 16 περισσεύοντες ἐν εὐχαριστία.

C: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승리

17(8) Βλέπετε μή τις ὑμᾶς ἔσται ὁ συλαγωγῶν διὰ τῆς φιλοσοφίας
 καὶ κενῆς ἀπάτης

17) 골 2:2의 본문비평 등급은 {B}이다. p⁴⁶과 B와 달리 s과 다수사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아버지”를 추가한다. 골 1:2는 성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1:3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기하기에, 2:2의 긴 이문은 이런 표현들에 동화된 거 같다.
 18) 골로새서에 명령형은 32회인데, 2장에는 7회 등장한다(2:6, 8, 16, 18, 21[x3]). 골 2:6은 첫 번째 명령형인데,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다. S. Rockwell, “Faith, Hope and Love in the Colossian Epistl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72/1 (2013), 41-42.
 19) 골 2:7의 비평등급은 {A}이다. B 그리고 D와 달리, s와 다수사본은 전치사(ἐν)를 추가하여 “그 믿음 안에서”(혹은 “그 믿음으로써”)라고 풀어 쓴다. ἐν이 없는 표현이 사본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Contra B.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 원문연구소, 2005), 537.

- 18 κατὰ τὴν παράδοσιν τῶν ἀνθρώπων, κατὰ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
καὶ οὐ κατὰ Χριστόν.
- 19(9) ὅτι ἐν αὐτῷ κατοικεῖ πάν τὸ πλήρωμα τῆς Θεότητος σωματικῶς,
20(10) καὶ ἐστὲ ἐν αὐτῷ πεπληρωμένοι,
21 ὅς ἐστιν ἡ κεφαλὴ πάσης ἀρχῆς καὶ ἐξουσίας.
22(11) Ἐν ᾧ καὶ περιετιμήθητε περιτομῇ ἀχειροποιήτῳ ἐν τῇ ἀπεκδύσει
ι τοῦ σώματος τῆς σαρκός, ἐν τῇ περιτομῇ τοῦ Χριστοῦ,
23(12) συνταφέντες αὐτῷ ἐν τῷ βαπτισμῷ,²⁰⁾
24 ἐν ᾧ καὶ συνηγέρθητε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τῆς ἐνεργείας τοῦ θεοῦ
τοῦ ἐγείραντος αὐτὸν ἐκ νεκρῶν.
25(13) καὶ ὑμᾶς νεκρούς ὄντας [ἐν] τοῖς παραπτώμασιν καὶ τῇ ἀκροβυσ-
τίᾳ τῆς σαρκός ὑμῶν,
26 συνεζωοποίησεν ὑμᾶς²¹⁾ σὺν αὐτῷ,
27 χαρισάμενος ἡμῖν πάντα τὰ παραπτώματα.
28(14) ἐξαιείψας τὸ καθ' ἡμῶν χειρόγραφον τοῖς δόγμασιν
29 ᾧ ἦν ὑπεναντίον ἡμῖν,
30 καὶ αὐτὸ ἤρκεν ἐκ τοῦ μέσου
31 προσηλώσας αὐτὸ τῷ σταυρῷ.
32(15) ἀπεκδυσάμενος τὰς ἀρχὰς καὶ τὰς ἐξουσίας
33 ἐδειγμάτισεν ἐν παρρησίᾳ,
34 Θριαμβεύσας αὐτοὺς ἐν αὐτῷ.

20) 참고로 후기 교부들과 달리, 초기 교부들은 골2:12를 유아 세례의 근거 구절로 이해하지 않았다. J. P. T. Hunt, "Colossians 2:11-12, the Circumcision/Baptism Analogy, and Infant Baptism," *Tyndale Bulletin* 41/2 (1990), 244.

21) 본문비평 등급이 {B}인 골2:13에서 **ⲛ A** 다수사본 일부와 달리, p⁴⁶, B, 33은 "너희를" 대신에 "우리를"이라 쓴다. '우리를'은 13절 마지막(콜론 27)에 등장하는 ἡμῖν('우리를 위해')과 일치시킨 것으로 보인다.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538.

D: 구원을 위해 어떤 관행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경계함

35(16) Μὴ οὖν τις ὑμᾶς κρινέτω ἐν βρώσει καὶ ἐν πόσει ἢ ἐν μέρει
ἐορτῆς ἢ νεομηνίας ἢ σαββάτων·
36(17) ἃ ἐστὶν σκιὰ τῶν μελλόντων,
37 τὸ δὲ σῶμα τοῦ Χριστοῦ.
38(18) μηδεὶς ὑμᾶς καταβραβεύετω
39 **θέλων** ἐν ταπεινοφροσύνῃ καὶ Θρησκείᾳ τῶν ἀγγέλων,
40 ἃ ἐόρακεν ἐμβατεύων,
41 εἰκῆ φυσιούμενος ὑπὸ τοῦ νοῦς τῆς **σαρκὸς** αὐτοῦ,
42(19) καὶ οὐ κρατῶν τὴν κεφαλὴν,
43 ἐξ οὗ πᾶν τὸ σῶμα διὰ τῶν ἀφῶν καὶ συνδέσμων ἐπιχορηγούμενον
44 καὶ συμβιβαζόμενον αὔξει τὴν αὔξησιν τοῦ *θεοῦ*.

E: 그리스도 안의 생활은 유대교의 관행을 준수함에 달려 있지 않음

45(20) Εἰ ἀπεθάνετε σὺν Χριστῷ ἀπὸ τῶν στοιχείων τοῦ κόσμου,
46 τί ὡς ζῶντες ἐν κόσμῳ δογματίζεσθε;
47(21) μὴ ἄψη
48 μηδὲ γεύση
49 μηδὲ Θίγης,
50(22) ἃ ἐστὶν πάντα εἰς φθορὰν τῇ ἀποχρήσει,
51 κατὰ τὰ ἐντάλματα καὶ διδασκαλίας τῶν ἀνθρώπων,
52(23) ἅτινά ἐστιν λόγον
53 μὲν ἔχοντα σοφίας ἐν ἐθελοθρησκίᾳ καὶ ταπεινοφροσύνῃ [καὶ]²²⁾

22) 본문비평 등급이 {C}인 골 2:23에서 GNT⁴와 GNT⁵는 접속사 καὶ를 [] 안에 처리한다. **κ**과 다수사본과 달리, p⁴⁶과 B는 καὶ를 생략한다. GNT 편집자들은 καὶ가 우발적으로 생략된 것으로 보지만, p⁴⁶과 B의 이른 연대를 고려할 때 우발적인 생략의 가능성은

ἀφειδία σώματος;

54 οὐκ ἐν τιμῇ τινι πρὸς πλησμονὴν τῆς σαρκός.

수직적 표지 9개는 다음과 같다: Χριστὸν/Ἰησοῦν/κύριον(5, 6, 11, 12[x2], 13, 14, 18, 19, 20, 22, 23, 24[x2], 26, 34, 37, 45; 18회), σαρκός(3, 9, 22, 25, 41, 54; 6회), σώματος(22, 43, 53; 3회), Θεοῦ(5, 24, 44; 3회), κόσμου(18, 45, 46; 3회), ἀνθρώπου(18, 51; 2회), πάντα(5, 19, 21, 27, 50; 5회), στοιχεῖα(18, 45; 2회),²³⁾ Θέλα(1, 39; 2회). 수직적 표지들을 종합하면, 성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의 죄성이나 초등학문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셨다.

수평적 표지 4개는 다음과 같다: χειρόγραφον(28, 29, 30, 31; 4회), πίστεως(15, 24; 2회), περιτομῆ(22[x2]; 2회), νεκρῶν(24, 25; 2회). 골로새서의 주제 진술의 근거를 밝히는 수평적 표지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성도의 빛 문서를 제거하셨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를²⁴⁾ 받았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사본의 무게가 대등하게 나누어지므로 낮은 등급이 매겨졌다. Contra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538.

23) 참고로 『개역개정』이 골 2:8과 20절의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번역한 στοιχεῖα를 흙, 물, 공기, 불이라는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라고 보는 해석하는 경우는 E. Schweizer, “Slaves of the Elements and Worshipers of Angels: Gal 4:3, 9 and Col 2:8, 18, 20,” *JBL* 107/3 (1988), 466-68을 보라. 따라서 Schweizer는 엄청난 힘을 가진 이 네 구성 요소들이 부조화를 이룰 때 지진이나 화산 폭발, 해일과 같은 재해가 일어난다고 골로새 교회가 믿고 두려워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Schweizer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 바울이 만유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해답으로 제시했다고 본다(골 1:16). 하지만 στοιχεῖα를 사람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여겨진 천체의 행성(창 1:14; 갈 4:9-10의 ‘달과 해’ 참조)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F. F. Bruce, “Colossian Problems, Pt 3: The Colossian Heresy,” *Bibliotheca Sacra* 141 (1984), 204-205를 보라.

24) 스위스의 교회개혁가 하인리히 불링거(1504-1575)는 『골로새서 주석』(1535)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골 2:11)를 구약의 할례가 성취된(그리스도의 손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마음에 행해진) “새롭고 영적인 할례”로 보면서, 할례가 세례로 전환되었다고 이해한다. J. Mock, “Bullinger and the Circumcisio Christi,” *Reformed Theological*

으므로 믿음으로써 살아야 한다. 따라서 수직적 표지의 내용을 수평적 표지는 더 분명하게 확증한다.²⁵⁾

위의 도표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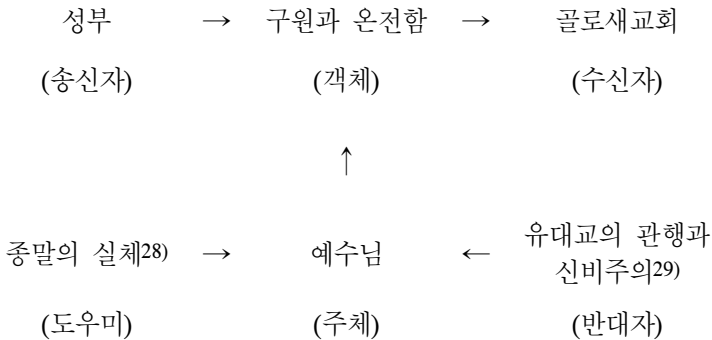
콜론	절	주제	관련성
1-11	1-5	교회들을 위한 바울의 수고	본론을 위한 서언
12-16	6-7	핵심 주제 진술	본론
17-34	8-15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승리 ²⁶⁾	본론의 근거
35-44	16-19	구원을 위해 어떤 관행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경계함	본론(과 본론의 근거)에 대한 반론 ¹²⁷⁾
45-54	20-23	그리스도 안의 생활은 유대교의 관행을 준수하는데 달려있지 않음	본론(과 본론의 근거)에 대한 반론 2

Review 73/2 (2014), 116에서 재인용. 불링거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해석가도 있다. 골 2:11-12의 “할례”는 구약-유대 제의적이라기보다 거짓 가르침을 논박하는 맥락에 등장하며, 바울은 육적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를 세례와 연결시키며, 세례는 영적 할례가 의미하는 그 이상 즉 죽음과 부활까지도 의미한다. 따라서 세례가 육체의 할례를 대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M. C. Salter, “Does Baptism replace Circumcision?: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rcumcision and Baptism in Colossians 2:11-12,” *Themelios* 35/1 (2010), 28을 보라. 참고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4의 유아 세례(paedobaptism)의 증거 구절로 골 2:11-13이 사용된다.

- 25) 골 2장을 설교할 경우, 14절을 중심 절(key verse)로 제시하면 된다. (남아공) 개혁교회는 설교 제목을 제시하지 않고, 설교의 요지(要旨) 즉 중심 주제를 단문으로 제시한다. 참고로 요지를 떠받치는 이른바 “3대지(大旨)”는 제시하지 않는다.
- 26)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사실(골 2:10)을 골로새서의 주요 주제로 보는 경우는 *ESV Study Bible* (Wheaton: Crossway, 2008), 2297을 보라. 참고로 골 2:10을 성도의 신격화(deification) 즉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에 참여하는 것, 환언하면, 성도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함으로(벧후 1:4 참조) 이해하는 경우는 B. C. Blackwell, “You are filled in Him: Theosis and Colossians 2-3,”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8/1 (2014), 119, 122를 보라.
- 27) 골 2:16-19는 신학적 암시로, 2:20-23은 신학적 주해로 단락을 나누는 경우는 G. T. Christopher, “A Discourse Analysis of Colossians 2:16-3:17,” *Grace Theological Journal* 11 (1990), 215를 보라.

골로새서 2장의 담론구조는 크게 5단락으로 나뉜다. 콜론 1-11은 서언으로서 골로새서 1:24-29를 이어 받아서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진술한다. 이어지는 콜론 12-16은 간략하게 핵심 주제를 진술하는데, 구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감사하며 살 것을 명령한다. 바울은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근거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과 승리를 콜론 17-34에서 상술한다. 콜론 35-44에 의하면, 실체의 그림자를 붙잡거나 천사송배를 지속하는 것은 구원과 승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콜론 45-54는 핵심 주제에 대한 근거에 대한 반론인데, 특별히 세상의 초보원리와 의식법을 거부해야 한다.

참고로 내러티브의 플롯을 보여주는 그레이마(A. J. Greimas)의 6개의 행위자 모델(actant model)에 기초한 골로새서 2장의 심층구조는 아래와 같다:



-
- 28) 갈라디아서는 유대 율법주의자의 도전에 맞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유케 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윤리를 성령론적으로 서신의 후반부에 강조한다. 하지만 골로새서의 경우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도의 온전함을 돕는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 29) 골로새서의 대적을 유대 율법주의자와 (금욕적) 영지주의자라고(참조. 2:21의 성교 금지) 추정하는 경우는 R. P. Roth, "Christ and the Powers of Darkness: Lessons from Colossians," *Word & World* 6/3 (1986), 337을 보라.

6. 골로새서 2장의 구속사

현대 신약학에서 구속사(救贖史)가 골동품이 아닌 이유 중 하나는 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간본문적 해석으로 인해 최근에 새롭게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흐르는 구속사의 전진을 어떻게 논증하는가? 골로새서 2:9는 1:15-19처럼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바울은 영원 전부터 계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을 제대로 믿어야 현재의 거짓 선생을 물리칠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³⁰⁾

선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셔서 죄 사함이라는 구원을 결정적으로 이루셨다. 골로새서 2:14의 ‘(자신의) 손으로 쓴 문서’(χειρόγραφον, NT hapax)를 에베소서 2:15에 비추어 ‘율법의 법조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예. 안디옥학과, 김규섭),³¹⁾ 골로새서에 ‘율법’(νόμος)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담이 사탄과 체결한 계약(bond; 예. Origen)이라는 해석은 골로새서에 마귀나 사탄이 직접 언급되지 않으며, 사탄과 맺은 계약이라는 사상 역시 나타나지 않기에 설득력이 없다. 혹은 BC 2세기부터 법률과 상업 문서에서 볼 수 있던 사람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에게 진 ‘빛 문서’라는 해석(예. Irenaeus, Lightfoot, 『바른성경』)은 골로새서 문맥 안에 어울리지만 어느 정도 적합한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의 범죄가 기록된 ‘하늘의 책’(참고. 계 5:1-5; 솔로몬의 송가 23:5-9)으로 보는 해석(예. Bandstra)은 최후 심판이라

30) 이 단락은 R. R. Jeal, “Starting before the Beginning: Precreation Discourse in Colossians,” *Religion & Theology* 18/3-4 (2011), 305, 308에서 요약함. 선재하신 그리스도와 피조물 사이의 구별은 Roth, “Christ and the Powers of Darkness: Lessons from Colossians,” 338을 참고하라.

31) 김규섭, “골로새서 2:14-23에서 언급된 규례들(δόγματα)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신약연구』 16/1 (2017), 162-64.

는 주제가 골로새서에 강조되어 있으므로 가능하지만(골 3:4 참조), 미래 종말론을 골로새서의 주요 주제로 보기 어렵다. 혹은 AD 2세기경 소아시아에서 흔했던 ‘참회의 기록’(현판, penitential stelae)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죄인의 회개할 때 신은 용서하고 경고를 위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1세기 상황에서 볼 때 시대착오적이 된다. 이상의 5가지 의견들은 각각 일리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한 사죄의 효력은 현재 완료형(ἤρκεν, 제거하셨다, 14절)으로 나타나기에, 독자들의 상황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되므로, 율법을 거슬러 범죄 할 수밖에 없는 성도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고발문서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³²⁾ 골로새서 2:15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써 이루신 승리는 로마의 개선행렬 때에 패잔병이 구경거리가 된 것을 염두에 두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골 1:18 참조) 머리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공유한다(고후 2:14 참조).³³⁾

32) R. Yates, “Colossians 2:14: Metaphor of Forgiveness,” *Biblica* 71/2 (1990), 249-58. 참고로 골 2:14-23의 종교적 규례들을 바울의 새 관점(NPP; 예. Dunn)처럼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지로 제한한다면, 골로새교회의 수평적인 일치 이슈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골 3:11),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율법의 수직적 기능을 약화시킨다. 반면, 종교적 규례들을 구원을 위한 인간의 율법 준수와 같은 행위로 본다면, 골로새서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김규섭, “골로새서 2:14-23에서 언급된 규례들(δόγματα)에 대한 새로운 접근,” 153-54. 골로새서의 NPP에 관해서는 Dunn,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174를 참조하라.

33) A. Hock, “Christ is the Par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Triumphal Procession in 2 Cor 2,14 and Col 2,15,” *Biblica* 88/1 (2007), 119. 골 2:15의 Θριαμβεύσας는 크게 4가지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1) to cause to triumph, (2) to triumph over, (3) to lead in triumph as a victorious soldier, (4) to lead as captives in a triumphal procession. 이 가운데 바울 서신과 골 2장의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승리와 구원을 (신앙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교회가 축하하며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롬 8:17; 고전 15:57; 고후 2:14; 딤후 2:3 참조). 하지만 교회의 장밋빛 “승리주의”(triumphalism)를 지지하지 않는다. L. Williamson Jr., “Led in Triumph: Paul’s Use of thriambeuo,” *Interpretation* 22/3 (1968), 317, 324-26, 332.

골로새 성도는 신약의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 제의 대신에 실체(實體; 참고로 『개역개정』은 ‘몸’[τὸ σῶμα])이라 직역하여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이 신³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종말의 구원을 누리야 한다(골 2:17). 이것은 옛 언약을 성취한 새 언약 시대의 구원이며, 반(反) 유대교적 특성을 가진다. 천사 숭배(골 2:18)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피조물을 다스리신다는 유대교의 사상에 비추어 볼 때, 골로새교회의 유대인 출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천사를 더 높은 존재로 여겨 숭배했다.³⁵⁾

여기서 그리스도 사건의 반(反) 로마적 메시지도 간과할 수 없다.³⁶⁾ 선재하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불가견적, 우주적, 영적인 사탄의 세력은 물론, 황제 안에 인격화된 가견적, 인지가능한 정치적인 세력도 제압하셨다.³⁷⁾

-
- 34) 참고로 골 2:16-18에서 바울이 비판한 여러 관행들은 대적들과 관련되지 않고 골로새 교회의 관행(예. 16절의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식)이라는 주장은 T. W. Martin, “But Let Everyone discern the Body of Christ (Colossians 2:17),” *JBL* 114/2 (1995), 254-55를 보라. Martin은 17절 하반 절을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 실체의 그림자인 너희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해한다. 이런 Martin의 주장과 달리, 바울은 골로새교회가 실체 대신에 구약의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 35) Roth, “Christ and the Powers of Darkness: Lessons from Colossians,” 342. 참고로 골 2:16-17은 유대교의 지상 제의를 가리키고, 골 2:18-23은 지상의 유대인들이 환상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천상 제의를 가리킨다는 주장은 M. M. Sokupa, “The Calendric Elements in Colossians 2:16 in Light of the Ongoing Debate on the Opponents,” *Neotestamentica* 46/1 (2012), 186을 보라.
- 36) 골 1:16, 20, 2:15와 3:11은 세상을 정복하여 팍스 로마나를 이루려는 로마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관점에서 비판한다고 보는 경우는 H. O. Maier, “A Sly Civility: Colossians and Empire,” *JSNT* 27/3 (2005), 326-28, 336을 보라. 황제와 황제 가족의 신격화를 통한 제국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신들과 우주적인 세력조차 황제의 통치 안에 구체화되었다(골 1:16 참조).
- 37) 바울 서신에서 영적인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천사’는 이란 종교로부터, ‘권세’는 헬레니즘으로부터 각각 유대교로 흡수되었다는 주장은 P. Benoit, “Pauline Angelology and Demonology: Reflexions on Designations of Heavenly Powers and on Origin of Angelic Evil according to Paul,” *Religious Studies Bulletin* 3/1 (1983), 4, 12를 보라. 하지만 바울이 다른 종교의 개념을 종합하여 활용했다는 종교사학파적 해석은 바울서신이 정초해

공적 경배의 대상이었던 로마 황제는 ‘생명의 시작’, ‘아버지’, ‘구원자’, ‘통치와 권세의 머리’, ‘신현’으로 추앙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골로새서에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들이다(1:13-14, 17; 2:9-10; 3:3-4, 16). 골로새를 포함한 소아시아에서 황제숭배는 만연했는데, 옥타비안 황제 이래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였던 네로에게로 이어졌다.³⁸⁾

그리스도 사건은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난 종말의 새 시대를 가져왔는데, 교회와 만유의 머리이신 구주 예수님의 구원은 반 유대교 및 반 로마적 메시지를 동반한다.

김규섭은 골로새교회를 위협하던 골로새서 2:18의 “천사(주격적 속격: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함; 참고 사 6) 숭배”와 “자신이 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골로새교회가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비로운 체험과 천상의 여행을 통한 계시 체험이라는 유대 금욕(18절의 “거짓 겸손” 참조) 신비주의의 특성으로 규정한다.³⁹⁾ 그리고 그는 제2성전 시기의 유대인들은 구원 획득은 물론, 완전(참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한다(IQS 1:8; 레위의 유언 13:2 참조).⁴⁰⁾ 이런 골로새서에 나타난 신비적 경험은 구원과 완전에 이르려는 두 가지 취지를 함께 고려하며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바울에 의하면 성도의 온전한 성숙은 신비로운 체험이나 금욕 혹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공유하는 교회는 승리주의에 도취할 수 없고,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의 저자 바울이 걸었던 길처럼 대신 십자가의 길과 고난과 환난과 순교까지 결단해야 한다.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킨다.

38) Jeal, “Starting before the Beginning,” 301.

39) 김규섭, “골로새서 2:14-23에서 언급된 규례들(δόγματα)에 대한 새로운 접근,” 164-65. 골 2:18의 “본 것”을 유대교의 “메르카바(하늘 하나님의 전차) 신비주의”(merkabah mysticism)와 연결하는 경우는 Bruce, “Colossian Problems, Pt 3,” 201-204 그리고 R. Yates, “Colossians and Gnosis,” *JSNT* 27 (1986), 62-63을 보라.

40) 김규섭, “골로새서 2:14-23에서 언급된 규례들(δόγματα)에 대한 새로운 접근,” 171, 188.

7. 나오면서

이상에서 살핀 바처럼 문학적 해석법인 담론분석은 역사-신학적 해석인 구속사적 주해를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된다. 골로새서 2장은 종말의 새 시대의 실체를 성취하신 그리스도 사건은 반 유대 및 반 로마적 메시지를 동반한 통전적 구원임을 소개한다.⁴¹⁾

골로새서 2장의 구원사적 메시지를 현대 교회에 적용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부활로 이루신 승리를 성도는 온전함으로 누리고 감사해야 한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금욕, 율법 준수, 전통 준수,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불가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몸으로서 종말론적 구원의 실체를 사모하고 누리며 자라갈 때 가능하다. 그리고 성도는 현대 교회를 미혹하고 위협하는 다원주의, 혼합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승리주의를 경계해야 한다.⁴²⁾

41) 남아공대학교(UNISA)의 삐에트 판 데이크(Peet Van Dyk)는 고대 근동과 로마제국의 신화적 우주관은 단지 형이상학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재를 담고 있으므로, 구약과 신약을 해석할 때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해하면 오석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판 데이크는 성경해석 전문가들도 “신화적 우주관”에 기초한 본문의 지평을 무시하면 오석이 습관화된다고 보는데, 볼트만의 환생(Bultmann redivivus)을 보는 듯하다. 판 데이크는 최근 고고학의 발전을 염두에 둔 채 신화적 우주관에 비추어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역사성과 독특한 계시성이 훼손되기 쉽다. 하지만 롬 10:7 주석에서 슈라이너(Tom Schreiner)가 간파하듯이, 신약 저자들의 “그리스도 완결적”(Christotelic)이며 “메시아 회고적”(messianic retrospective) 구약사 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오석의 습관화는 가속화 할 것이다. 신약 저자가 예수님의 공사역을 출발점으로 삼아 구약을 다시 읽었던 해석법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성경해석에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게 오석이다. 간본문적 능력이 약하면 본문과 자신의 경험을 먼저 연결시키려 하지만, 그 능력이 개발되면 신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연결한다. 참고. P. J. Van Dyk, “When Misinterpreting the Bible becomes a Habit,” *HTS Theologiese Studies* 74/4 (2018), 1-8; T. R. Schreiner, *Romans* (BECNT; Grand Rapids: Baker, 1998), 557.

참고문헌

- 김구원.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복있는 사람, 2013.
- 김규섭. “골로새서 2:14-23에서 언급된 규례들(δόγματα)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신약연구』 16/1 (2017): 148-96.
- 배종열. 『문맥에 따라 읽는 에베소서』. 서울: CLC, 2005.
- 송영목. “유다서의 구문과 구조의 특성.” 『신약논단』 28/1 (2018): 181-206.
- 이진섭. 『성경사용 설명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_____. “에베소서의 문맥구조분석과 그 함의.” 『성경과 교회』 15/1 (2017): 151-83.
- 홍인규. 『헬라이어 갈라디아서의 구조분석』. 서울: 도서출판 신국, 2003.
- Abrams, M. H. 『문학용어사전』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최성규 역. 서울: 보성출판사, 1999.
- Benoit, P. “Pauline Angelology and Demonology: Reflexions on Designations of Heavenly Powers and on Origin of Angelic Evil according to Paul.” *Religious Studies Bulletin* 3/1 (1983): 1-18.
- Blackwell, B. C. “You are filled in Him: Theosis and Colossians 2-3.”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8/1 (2014): 103-123.
- Brown, J. K. *Scripture as Communication: Introducing Biblical Hermeneutic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 Bruce, F. F. “Colossian Problems, Pt 3: The Colossian Heresy.” *Bibliotheca Sacra* 141 (1984): 195-208.
- Christopher, G. T. “A Discourse Analysis of Colossians 2:16-3:17.” *Grace Theological Journal* 11 (1990): 205-220.

42) 교회 성장이 정체된 한국 교회가 승리주의가 아니라 패배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 Cotterell, P. and Turner, M. *Linguistic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Leicester: IVP, 1989.
- Dunn, J. D. G.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6.
- ESV Study Bible*. Wheaton: Crossway, 2008.
- Garland, D. E. *Colossians/Philemon*. Grand Rapids: Zondervan, 1998.
- Hock, A. "Christ is the Par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Triumphal Procession in 2 Cor 2,14 and Col 2,15." *Biblica* 88/1 (2007): 110-19.
- Hunt, J. P. T. "Colossians 2:11-12, the Circumcision/Baptism Analogy, and Infant Baptism." *Tyndale Bulletin* 41/2 (1990): 227-44.
- Jeal, R. R. "Starting before the Beginning: Precreation Discourse in Colossians." *Religion & Theology* 18/3-4 (2011): 287-310.
- Maier, H. O. "A Sly Civility: Colossians and Empire." *JSNT* 27/3 (2005): 323-49.
- Martin, T. W. "But Let Everyone discern the Body of Christ (Colossians 2:17)." *JBL* 114/2 (1995): 249-55.
- Metzger, B. M.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 Mock, J. "Bullinger and the *Circumcisio Christi*." *Reformed Theological Review* 73/2 (2014): 101-116.
- Nida, E. A., Louw, J. P., Snyman, A. H., and Cronje, W. J. *Style and Discourse*.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83.
- Pao, D. W. *Colossians & Philemon*.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 Porter, S.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_____. "Discourse Analysis and New Testament Studies," *Discourse Analysis*

- and Other Topics in Biblical Greek*. Edited by S. E. Porter and D. A. Cars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Reed, J. T. "Discourse Analysis as New Testament Hermeneutic: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ppraisal." *JETS* 39/2 (1996): 223-40.
- Rockwell, S. "Faith, Hope and Love in the Colossian Epistl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72/1 (2013): 36-52.
- Roth, R. P. "Christ and the Powers of Darkness: Lessons from Colossians." *Word & World* 6/3 (1986): 336-44.
- Ryken, L. 『문학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How to read the Bible as Literature*). 곽철호 역. 서울: 은성, 1996.
- Salter, M. C. "Does Baptism replace Circumcision?: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rcumcision and Baptism in Colossians 2:11-12." *Themelios* 35/1 (2010): 15-29.
- Schreiner, T. R. *Romans*. BECNT. Grand Rapids: Baker, 1998.
- Schweizer, E. "Slaves of the Elements and Worshipers of Angels: Gal 4:3, 9 and Col 2:8, 18, 20." *JBL* 107/3 (1988): 455-68.
- Sokupa, M. M. "The Calendric Elements in Colossians 2:16 in Light of the Ongoing Debate on the Opponents." *Neotestamentica* 46/1 (2012): 172-89.
- Van Dyk, P. J. "When Misinterpreting the Bible becomes a Habit." *HTS Teologiese Studies* 74/4 (2018): 1-8.
- Van Rensburg, F. *Inleiding tot die Sementiek van Nuwe-Testamentiese Grieks*. Potchefstroom: Wesvali Boekhandel, 1979.
- Williamson Jr., L. "Led in Triumph: Paul's Use of *thriambeuō*." *Interpretation* 22/3 (1968): 317-32.
- Yates, R. "Colossians and Gnosis." *JSNT* 27 (1986): 49-68.
- _____. "Colossians 2:14: Metaphor of Forgiveness." *Biblica* 71/2 (1990): 248-59.